

갤러리 색즉시공



<공양제물 공행백본은 금강경의 경구>

부처님의 열반

“아난다여, 내가 가고난 후에는 내가 그대들에게 가르치고 천명한 법과 율이 그대들의 스승이 될 것이다. 그대들은 저마다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기를 의지하라. 또한 진리를 등불로 삼고 진리를 의지하라(自燈明法燈明). 이밖에 다른 것에 의지해서는 안 된다. 비구들이여, 참으로 이제 그대들에게 당부하노니, 형성된 것들은 소멸하기 마련인 법이다. 방일하지 말고 해야 할 바를 모두 성취하라.” 말씀을 마치신 세존께서는 초선에 드셨다. 그리고 2선, 3선 4선을 거쳐 공무변처에 드셨고,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 후에 상수멸에 드셨다.

3월 15일(음 2월 15일)은 부처님께서 일체의 번뇌를 끊고 열반에 드신 날(열반제일)이다. 석가모니부처님의 육신이 이 세상에서 떠나가신 날이다. 무명의 삶을 살아가는 중생에게 부처님 오신 날도 새겨야 할 일이지만 가신 날 또한 잊을 수 없는 날이다. 오신 날 만큼 우리들 마음 속에 가신 날의 기억이 적은 것은 아닐까. 부처님의 마지막 말씀, 그 말씀 따르는 일이 평생 하신 말씀 기억하는 일이니, 오늘 하루 그 말씀 입에 붙이기만 해도 그 일 가벼운 일 아닐 것이다.

그림·성룡 스님 / 글·박재완 기자

“인과의 윤회 법문에 환희심... 신묘한 약”

불교와 만나다

나는 너와 더불어 사는 존재, 그래서 한 뿌리 한 생명이며, 원인을 지으면 반드시 결과가 따른다는 인과의 법칙만 알아도 인생의 문제 반은 해결된 것이다. 내가 한 말과 행동, 마음먹었던 생각들로 인한 결과물이 오늘의 '나' 라는 사실을 불교를 만나면서 깨달았다. 지금이야 내가 지어 내가 받는다는 자작자수(自作自受), 모든 것은 내 마음이 만든다는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를 아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지만 당시엔 정말 심연 깊숙이 다가와 내 모든 것을 흔들어 주고 지나갔다. 그렇게 불교와 만났고, 깊이 들어갔고 내게 주어지는 모든 인연들을 즐기며 내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살아왔다.

불교와 만나기 전에는 내가 하는 일, 당하는 일, 주위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이 마치 남의 일처럼 느껴졌다.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누군가에 의해 끌려가는 느낌이었다고 할까.

의식의 밑바닥 깊숙이에서 '이것이 아닌데...' 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인과답게 내 의지가 참가하는 삶을 살고 싶다는 내면의 소리가 날마다 들려왔을 때, 불교와 만났다. 종교에 대한 그리움이 떠나온 고향을 향한 향수처럼 고퍼 있던 그때가 서른아홉, 막 불혹을 앞둔 나이였다.

어렸을 때는 성당에 다녔고 한때는 수녀를 꿈꾸기도 했다. 결혼 전 직장에 다닐 때는 회화동에 있는 동정녀마리아회라는 모임에 나가기도 했다. 천주교를 계속 믿고 싶었지만 결혼을 하고 나니, 시댁에서는 불교를 믿고 있었기에 용납이 되지 않았다. 순종이 미덕인줄만 알았던 새댁 시절이었기에 시댁식구들이 믿는 종교를 따라야 한다고 생각했다. 내 주장을 세우지 않고 살아왔기 때문에 불교와 만날 수 있지 않

았나 싶다.

혼인을 하고 보니 종교가 불교라고는 하나 부처님 오신날 한 번 정도 절에 갔다. 그래도 나는 초파일이 되면 애들을 데리고 절에 가서 아이들에게 스케치북에 부처님 그림을 그리게 했고, 떡도 받아먹고 밥도 먹고 왔다.

그런데 그렇게 일 년에 한 번씩 따라 다녀보니까 불교라는 종교가 '우리 집안 잘되게 해달라'고 복을 비는 것이 전부라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우선 불교를 제대로 알아야겠다 싶었다. 올바로 이해하고 나서 내가 믿는 종교와 비교해 시댁식구들에게 내 종교를 믿게 하던지, 아니면 내가 불교를 믿던지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해야 할 것 같았다.

짧은 치마를 입고 처음 봉은사 법당에서 절을 했던 그날을 잊을 수 없다. 그만큼 아무 것도 몰랐다. 법당 한쪽에 쌓여 있는 방석에 입자가 있는 줄 알고 방석 크기를 재고 색깔도 눈에 담아두고 나와 동대문 시장에 가서 감을 끊어 내 방석을 만들었다.

그 후 남들이 절을 하기에 절을 했고 관세음보살을 부르길래 따라 불렀고, 불교 용품점에 가니(법화경)의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팔길래 사서 읽고(몽수경)도 읽었다. 이웃 종교에서는 처음 입문하는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안내해주는데 불교는 누가 오는지 가는지 무심해서, 혼자 알아서 믿어야 하는 종교인 줄 알았다.

불교가 도시 무얼 가르치지니 알아야겠는데 가르쳐 주는 곳이 없었다. 지금은 웬만한 큰 절에는 불교 기초교리강좌가 개설되어있지만, 당시에는 어느 절도 마찬가지였지만 봉은사에도 그런 과정이 없었고, 게다가 봉은사에선 스님들끼리 다툼이 일어나서 날마다 데모를 하고 있었다. 데리고 갔던 아이들이 "엄마, 스님들이 왜 데모를 해?" 하고 물기에 "응, 데모

이란보살의 인과이야기



결혼 후 시댁 종교 따라 불교로 개종 '감인대' 화두... 사바는忍土 절감

를 하지 말자고 데모를 하는 거야."라고 궁색하게 변명했던 기억이 떠오른다. 데모 때문에 잠깐 절에 가지 않았다. 아이들은 이것저것 보고 자라야 한다고 하지만 기왕이면 밝은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그즈음이었을 것이다. 남편의 친구 모임에서 부부 동반으로 남한산성에 놀러갔는데 잠시 자유 시간이 주어졌다. 사람들이 흩어져 봄나물을 캐는 동안 나는 호젓하게 산길을 올라가다가 작은 절을 발견하고 들어갔다. 마침 법문 시간 중이었는데 스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셨는데 "산다는 것이 참고 기다리는 일이다" 라는 요지의 말씀이었다.

법문 전체는 잘 알아듣지 못했지만 집에 돌아와서도 그 말씀이 마음속에서 뭉클거렸던 걸 보면 인상에 남았던 것 같다. 돌아와 얼마 후, 아이들을 데리고 다

시 그 절을 찾았다. 마음으로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여서 여쭈어보았다.

"스님 지난 법회에서 법문하실 때 신묘한 약을 다시 한 번 듣고 싶어서 찾아보았습니다."

스님께서 묵묵히 계시더니 한지에 붓글씨로 '감인대(甘忍待)'라고 써주셨다.

지금 생각해보면 스님께서 그때 안정을 이루지 못하는 내 마음을 읽고 가장 필요한 것을 말씀해주셨던 것 같다. 동국제강 본사에 근무하던 남편이 포항에 신설 공장을 세울 때 창립멤버로 갔다. 아이들과 서울에서 생활하던 나는 결혼생활 중 남편과 따로 살던 그때가 가장 힘들었던 것 같다. 마음을 가누기 힘들 때마다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그 절에 가서 초를 켜고 "견디고 참고 기다리는 게 내 길이라면 그렇게 해보겠다."하고 다짐했다.

어느 날은 스님께서 무엇을 꿰뚫어 보신 듯 기다릴 '대(待)' 자 하나만 써주셨다. 어느덧 '감인대'가 나의 화두가 되었고 나중에 태고종 중정이 되신 덕암스님께 수덕화修德華라는 법명을 받았다. 좀 더 세월이 흐르고 나서야 사바세계는 우리에게 온 일을 견디며 살아야 하는 인토(忍土)임을 알았고, 인생은 기다림의 과정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것이 세상사를 관통하는 연기법과 인과법을 수용하면서 사는 길이요, 중생에 수순하는 길이며 도의 길이라는 걸 알았다. 그때 화두로 들었던 감인대야말로 세상을 수용하고 나를 수용하는 철학이라는 것을 안 것이다.

봉은사 분규가 가라앉게 되자 자연스럽게 봉은사로 다시 가게 되었다.

책이름은 잊어버렸지만 불교 책을 보는데 인과와 윤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 내가 지은 대로 받고 내가 행동한 대로 윤회한다는 가르침에 눈이 번쩍 떠지는 느낌이였다.

"나로 인해 모든 것이 생기는구나. 나에게 일어나는 일은 누구를 탓할 것도 아니고, 내가 만들어서 일어나는 거니까 내 마음을 담으면 되겠구나."

좋은 것은 금방 받아들여 내 것으로 만드는 힘이 있었기에, 그렇게 발심을 하지마자 불교에 바로 들

어갔다. "식구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도 내가 그들을 힘들게 했기 때문이다."

남편과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어 내가 받는다는 인과의 법문은 힘들었던 마음을 치유하는 데 신묘한 약이 되었다. 살면서 무수히 들었던 "몽 심은 데 통 팔 심은 데 팔 나고, 뿌린 대로 거둔다." 라는 격언들이 이미 인과의 법문을 말해주고 있었던 것이건만 무심히 지나쳐왔던 것이다.

인과와 윤회의 도리를 안 순간부터 말로 다할 수 없을 만큼 환희심이 올라왔다. 그것이 인과의 법문이며 불교의 핵심이라는 것을 확신한 순간부터 살얼음판의 삶을 산다고 할까, 발 한발자국을 땀 때마다 "이게 진정으로 바로 가는 것인가?" 라는 마음의 소릴 듣기 시작했다. 인과와 윤회의 도리를 알게 되니 남편을 비롯한 시댁식구들에게 "내 종교로 가지"라고 할 일이 없어졌다.

절대선이나 인생을 좌지우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내 인생의 역사를 만든다는 것이 마음에 와 닿았다.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는 신의 종이 아니라 부처와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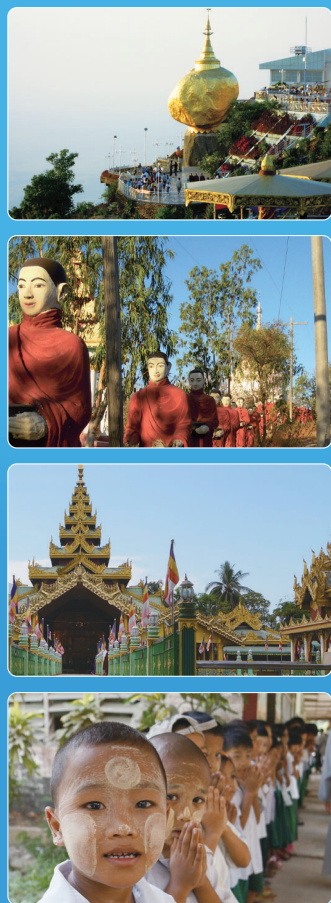
가톨릭에서는 영세를 받는 것은 아기신앙이고 활동을 하지 않고 지내는 것을 병담자라고 하는데, 하느님 세계에서는 굉장한 죄를 짓는 일에서 언젠가는 가톨릭으로 가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으나, 인과와 윤회의 도리를 알고는 과감하게 정리할 수 있었다. 더 미룰 수가 없어 성당에 가서 신부님께 고해성사를 드렸다.

"남편이 불교를 믿어서 결혼 후에는 성당에 가지 않았지만 마음으로 믿고 살았습니다. 내 종교에 귀의시키려고 불교 공부를 해보았는데 마음에 와 닿아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이 생겼습니다."

신부님께서 인도를 아주 잘 해주셨다. "잘 살려고 종교를 믿는 것이니 그런 의미에서 종교는 다 똑같습니다. 결혼을 하셨으니까 시댁의 종교를 따르세요."

신부님의 말씀을 듣고 편한 마음으로 불교도로서의 삶을 시작했다. <여여원 원장>

마하연 투어



부처님께 한결음 더 가까워지는 성지순례

불기 2558년 부처님 오신날 봉축 특별 할인가로 모십니다

- * 불탑의 나라 미얀마 (양곤 바고) 5일 699,000부터
- (양곤 바간 헤호) 5일 1,290,000부터
- * 은둔의 나라 라오스 성지순례 5일 1,190,000부터
- * 대만 정통 성지순례 5일 1,190,000부터
- * 중국 지장도량 (구화산 황산) 5일 1,090,000부터
- * 중국 지장도량 + 관음도량 7일 1,290,000부터
- * 민족의 영산 백두산 4일 899,000부터

해의 성지순례 단체 문의 주세요....

【불탑의 나라 미얀마 성지순례】

- * 양곤 바간 헤호 5일.....요금문의
- * 양곤 바간 만달레이 헤호 6일.....요금문의
- * 양곤 바간 만달레이 헤호 짜이티오 7일.....요금문의

【중국 정통 4대 불산 성지순례】

- 지장도량 (구화산) 5일.....요금문의
- 관음도량(보타.낙가산) 5일.....요금문의
- 지장도량 + 관음도량 7일.....요금문의
- 문수도량 오대산 석가장 조주 관음원 6일.....요금문의
- 보현도량 아미산 낙산대불,구채구 황룡 6일.....요금문의

【품격 성지순례】

- 스리랑카 정통 성지순례(직항) 7일.....요금문의
- 은둔의나라라오스성지순례(직항) 5일.....요금문의
- 인도8대 성지순례 10일.....요금문의
- 대만 정통 성지순례 5일.....요금문의
- 민족의 영산 백두산 성지순례 5일.....요금문의

중국·태국 라오스 현지 직영 사무실 OPEN (주)마하연 투어 ☎ 02)365-7747

대덕 콘스님, 불자들의 인연 소중이 생각하겠습니다.

대표: 헤거 두손모음